‘달빛고속철도’ 사전타당성조사…영·호남 상생발전 기대

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계획’ 8개 사업 연내 용역 발주
광주시·대구시, 조기 완공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선) 건설 사업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연내 시작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사업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고, ‘4차국가철도망계획(2021~2030년)’ 기간 내 조기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인정하는 첫 단계인 사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절차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인 8개 사업은 광주~대구(달빛고속철도), 전라선고속화,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동해선, 전주김천선, 대구산단산업선, 원주연결선 등이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과 서대구 간 198.8㎞ 구간을 잇는 단선전철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영호남 횡단축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영호남 철도 소외지역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부 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명~평택 66.3㎞ 구간의 2복선 전철화에는 5조 6000억원, 익산~여수 89.2㎞ 구간의 전라선 복선전철 고속화에는 3조원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연결선(7.1㎞·사업비 5400억원), 삼척~강릉 일반철도(43.0㎞·1조 2000억원), 전주~김천 일반철도(101.1㎞·2조 5000억원), 원주~만종 연결선(6.6㎞·6300억원), 대구산단~대합산단 일반철도(5.4㎞·2600억원) 등이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들 8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신규 고속·일반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모두 착수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중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본격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 조기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된 만큼, 영호남 상생발전의 상징인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대구시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뷰티관광콘텐츠 팸투어’ 관광전문기자와 블러거, 미용 종사자들을 광주로 불러오기 위한 ‘뷰티관광콘텐츠 팸투어’가 2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웨딩드레스를 차려입은 모델들이 포즈 잡으며 광주의 멋과 미를 알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첨단3지구 개발, 대장동과 근본적으로 달라”

광주도시공사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과도한 이익 제한”

광주 도시공사는 25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첨단 3지구 대행개발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민곤 광주 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공동 주택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제안자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기관을 통해 분양 예정 가격, 수익률의 적정성을 1~2개월간 검증하기로 했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계약서에 가격, 수익률을 명시해 지키도록 하고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정 사장은 밝혔다.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초과 이익 공공 투자 등은 공모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업체와의 의견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했으며, 대행 개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유동비율, 시공 능력 등 평가기준이 해당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사장은 이밖에도 일각에서 제기된 대장지구 개발과 첨단 3지구 3공구 대행 개발은 추진 방식, 이익 배분 의혹 등에 대해 원천적으로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정 사장은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은 경기도 대장지구 도시개발과 이번 첨단 3지구 사업은 근거법, 사업 방식, 수익 구조 등이 다르다”면서 “택지 분양 수입은 도시공사에서 전액 환수하고, 분양가 상한제, 62개 항목도 원가 공개 대상인 만큼 과도한 이익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361만6000여㎡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공사는 이 중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대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용지 3개 필지 22만7200여㎡를 선분양하고 분양 대금 3857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바이씨와 함께라면 나도 요리사’…전남도, 수산물요리 영상 공모

11월 5일까지 어촌 직거래망 ‘바이씨’ 비대면 요리대회

전남도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전남의 우수 어촌계들이 참여해 도시민과 직거래하는 ‘바이씨(www.buysea.co.kr)’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요리대회 ‘바이씨와 함께라면 나도 요리사’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5일까지 요리영상을 접수해 위생, 작품 완성도, 전남 수산물 홍보,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우수작을 낸 17명에게 540만원 상당의 바이씨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요리대회는 바이씨에 등록된 25개 어촌계의 전복, 문어, 키조개, 돔, 미역, 다시마, 꼬시레기 등의 수산물과 주문자상표제작(OEM) 제품인 전복·조개 분말, 마음미역 등을 소비자들이 구입한 뒤 2~5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응모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요리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이씨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접수기간 내 바이씨에서 수산물을 구입해야 한다. 또 택배 도착 후 상품을 개봉하는 장면, 가족 등과 시식하는 장면 등을 영상에 포함하고, 본인 소유 SNS 계정에 영상 업로드 및 해시태크 설정을 해야 한다.

제출된 영상에 대해서는 (사)한국조리사협회 광주전남지회, 요리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시상하며, 대상 1명에게 10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 50만 원, 우수상 10명에게 30만 원, 특별상 4명에게 10만 원 등을 바이씨 적립금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전남 어촌에서 생산되고 있는 질 높고 건강한 수산물을 도시민에게 직접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어촌직거래망 바이씨의 취지”라며 “이번 요리대회를 계기로 전남 수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려 어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어촌 직거래 통합 사이트 ‘바이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소포장이 가능하거나 직거래를 바라는 전남 우수어촌을 등록시켜 전국 최초로 운영에 들어갔다.

소포장이 어려운 어촌계의 경우 협력업체를 거쳐 소비자들이 선호한 형태로 포장·배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어촌의 6차 산업화를 이끌어 어촌 삶의 질 증진, 어민 소득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학산업 탄소중립 거점 여수에 들어선다

전남도-화학연구원-여수시, 전남조직 설립 업무협약

전남도 화학산업 분야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가 오는 2022년까지 여수에 건립된다. 전남도, 한국화학연구원, 여수시는 25일 여수·광양산단을 탄소중립형 화학기술 상용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여수)조직 설립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장, 권오봉 여수시장이 참석했다.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조직은 2022년 여수국가산단 인근 삼동지구 2만349㎡ 부지에 국내 유일 화학 분야 R&D 실증 조직인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 설립을 목표로 한다.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는 석유화학 촉매 실증센터와 이산화탄소 표집·활용(CCU) 실증센터, 2개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연구인력 40여 명이 상주한다.

전남도, 화학연구원, 여수시, 3개 기관은 화학연구원 전남조직의 토대가 되는 1단계 사업으로 283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석유화학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석유화학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의 촉매제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80억원이 소요될 2단계 사업 ‘CCU 실증센터’와 관련,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화학연구원 전남조직이 설립되면 탄소중립형 화학기술 개발, 산업수요 맞춤형 화학소재 실증·양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원천기술 실증을 통해 상용화로 연계하는 탄소중립의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남도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은 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클린 전남 구현’을 위해 가장 큰 변화가 시급하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이 산업 분야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연구개발의 토대를 구축해, 석유화학·정유·철강산업을 탄소중립형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조직과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사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